

北 김정은 노골적 도발...한반도 정세 '시계제로'

'ICBM용 수소탄 시험' 명목...美 정책·국제사회 압박 한미일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고강도 제재 시도 전망

북한이 3일 최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제6차 핵실험 카드를 기어이 사용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가 됐다. 지난 7월 두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개월여 만에 'ICBM용 수소탄 시험'을 명목으로 한 핵실험으로 내달린 것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향한 '속전속결식'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도발은 한미가 사

실상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배치를 향해 지체 없이 내달릴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기화란 결국 실전배치까지 된 상태를 의

미한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도발을 '레드라인'을 밟은 노골적 도발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응은 물론 우리 정부의 구체적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도발은 북핵·미사일에 맞선 국제사회의 '외교 실패'를 드러낸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7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도발 중단'으로까지 낮추고 대화를 간절

히 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IRBM 발사 후 고강도 안보리 제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중이 보여준 태도는 김정은에게 앞으로 핵·미사일의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실험을 강행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핵보유를 전제로 한(한반도 안보 지형의) '리셋'(reset, 판갈이)이 김정은의 구상"이라며 "이제는 핵보유를 달성했으니 국제사회가 우리(북한)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가 하지는 협상의 틀에 들어올지 말지

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도발의 메시지를 해석했다. 한반도 정세는 위기의 '클라이맥스'에 거의 도달한 양상이다. 한미일은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최후의 저지선 구축을 시도할 전망이다. 7월 ICBM급 미사일 연쇄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석탄 및 주요 광물 수출 차단까지 진행될 가운데, 추가 핵실험에 대해 새롭게 채택될 안보리 결의의 관건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공급) 차단이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외교가는 보

고 있다. 만약 중국·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격화를 이유로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차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불법 유무를 가리지 않고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6~7일 러시아 방문,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이 집결하는 19~25일 유엔 총회는 핵실험 정국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의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영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靑, NSC소집...北 추가도발 대응 모색

북한이 3일 오후 6차 핵 실험을 감행하자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날 북한 핵 실험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이 무엇인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입계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당장 핵 무기 전력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위협한 것을 감안하면 레드라인에 거의 다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감행한다면 수소폭탄 핵탄두 개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6차 핵 실험까지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NSC 소집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 규모와 추가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관련, "북한도 완성 단계 진입이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며 "(북한도)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완성 단계 진입을 위해 이번 핵 실험을 했다고 표현한 걸 보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완성단계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동속기자 tuim@kwangju.co.kr

"北 무모한 도발" 한목소리... 정부 대응엔 입장차

여야 반응
여야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당은 신속한 대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그동안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등 입장차를 보였다. 긴급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실험은 자기 파괴적 행위"라며 "북한의 안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국지적 도발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한반도 안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긴급회의 직후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급 안보 대화를 제의했다. 바른정당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바른정당은 늘 힘을 보탬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제사회 심각한 위협" 강력 규탄

미·중·일 반응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매스터 NSC 보좌관이 한국 측과 대응책을 협의한 만큼, 이미 미 안보·정보 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단호히 반대한

다"는 표현을 썼으나, 이번에는 "강력히 규탄한다"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날 중국의 주요 국가행사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개막 행사 외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격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넘어 총리관저로 나와 북한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거론한 뒤 "핵실험이 사실상 판명된다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도발 행동을 상습시킨 북한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보여준 것"이라며 "응수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핵융합 이용...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배 폭발력

수소폭탄이란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탄두로 장착할 '수소탄'을 개발하기 위해 단행한 6차 핵실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이 폭탄의 위력과 북한의 개발 진도에 관심이 쏠린다. 핵무기의 일종인 수소폭탄은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할 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 배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핵분열 원자탄을 1단계 기폭 장치로 사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2단계로 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이를 위해서는 핵분열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핵융합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핵물리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사이트 '조선의오늘'은 지난해 3월 수소폭탄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수백만 분의 1초 사이에 진행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굉장한 큰 에너지를 내게 된다"며 "같은 크기의 원자탄에 비하여 수소탄은 1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핵융합 반응은 수천만도의 고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탄은 '열핵(熱核)무기'라고도 불린다. 이날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관련 성명에서 이번엔 실험한 핵무기를 '2단 열핵무기'로 언급하고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이같은 수소폭탄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철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

Mega outlet
LIFE STYLE FASHION OUTLET

LifeStyle Fashion Outlet
Mega outlet에서 함께 할 식당가 운영점주님을 모집합니다

광주의 중심 백운광장 남구청사에 닥스, 나이키, 데방트, 노스페이스, 지미코 등 국내외 최정상급 브랜드 70여 브랜드가 입점하는 Mega outlet 광주점이 9월말 오픈합니다. BIF 핫트렌드의 최신프랜차이즈 푸드존에서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지하 1층 프랜차이즈 식당가 4개점 경영점주
대상브랜드 맨무사(일본라면), 두끼(분식뷔페), 북촌순만두(만두/냉면), 스테이크보스(캐주얼스테이크)
운영조건 브랜드별 상이 (입점문의 010-9545-1318 이성훈이사)

층별 안내

- B1F Food | kids
- 1F Sports | Casual | Shoes
- 2F Outdoor | Woman's wear
- 3F Men's wear

BASIC HOUSE | SI JOINUS | BIG FARENHEIT | ZIOZIA | HAZZYS | B&B | infuma